

서울인쇄조합 신임이사장에 조정석 대원문화사 사장 당선

서울인쇄정보조합 신임 이사장에 조정석 (주)대원문화사 사장이 당선됐다. 서울인쇄정보조합은 지난 2월 23일 오전 10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2007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경선을 통해 임기 4년의 신임 이사장에 조정석 사장을 선출했다. 선문사 이충원 사장과 (주)대원문화사 조정석 사장의 맞대결로 치러진 이날 투표에서 조정석 후보는 유효투표수 1088표 중 672표, 이충원 후보는 416표를 얻었다.

이날 총회는 강득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회장, 최창근 인쇄연합회 회장,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등 내빈과 1200여명의 조합원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이충원 이사장의 개회사, 강득구 지회장 및 최창근 인쇄연합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2006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서, 2007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서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이광재 서진인쇄사 사장, 안광범 도서출판사람과지혜 사장이 서울시장 상을, 나기용 세종씨엔피(주) 대표이사, 박재은 한양기업 대표, 김수민 신성기획인쇄 대표, 김용식 기산칼라 대표, 서상준 형제문화사 대표, 송춘섭 동양전산품(주)대표이사가 중소기업중앙회장 상을, 김정숙 신원인쇄사 대표, 안영주 진흥PNDCO기획 대표, 이성근 (주)청우토탈컴 대표이사, 김경수 진영기획인쇄 대표, 김선호 연화기획 대표, 장세림 (주)삼성비스코 대표이사가 인쇄연합회장 상을, 하대전



범일인쇄 대표, 양순옥 신명종합인쇄사 대표, 김종만 광문당인쇄 대표, 김성식 (주)폼마트 대표이사, 주 백 완 유인쇄 대표가 조합 이사장 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 임경목 동성특수인쇄 디자인실 차장 등 15명이 모범 근로자상을 수상했다.

이충원 이사장은 안건 상정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지난 3년간 대과없이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준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미흡한 면도 있었다”고 술회했다.

한편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조정석 사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항상 노력할 것이며 조합은 조합원의 것인 만큼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상담해 달라”고 말하고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중심으로 힘이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총회 모습
- ⊙ 투표를 위해 길게 줄을 선 조합원들
- ⊙ 이사회에 당선된 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조정석 신임이사장

✦ 조정석 이사장 선거공약

- 화합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 중구 관내 종합인쇄타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조합자산 재평가로 조합원 자신의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 서울시경인쇄조합 청산문제를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인쇄업계에 맞는 공공구매가 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인터넷 인쇄소평몰을 구축, 시장질서 확립, 공동구매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겠습니다.
- 2천만원 미만 인쇄물을 조합원에게 공정 추천하겠습니다.
- 인쇄인을 위한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 고용장려금을 더욱 확대하고 조건을 완화하겠습니다.
- 수출협력단을 구성하고 통합상표를 개발하겠습니다.